

한국 주요 醫書에 나타난 64卦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教授

白裕相*

A Study on the 64 Trigrams in Major Books of Korean Medicine

Baik Yousang*

¹Professo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Contents on the 64 trigrams in major medical texts from early to late Joseon such as the *Uibangyuchwi*(醫方類聚), *Donguibogam*(東醫寶鑑), *Somundaeyo*(素問大要), *Gyeokchigo*(格致藥) were analyzed to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context.

Methods : Related contents in each medical texts were collected, sorted and analyzed for thorough examination.

Results : The study of Changes which was widely applied in the field of medicine throughout the Joseon period focused more heavily on each of the trigram patterns, especially in regards to the qi interac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axis of the body, rather than the various meanings of the ten wings[十翼]. This is a result of the Jing-Qi-Shen perspective of the body and the universe that transcends the Daoist inner cultivation method[內丹術], under which concepts related to qi circulation such as the opening and closing[闔關] of the Heaven[乾] and the Earth[坤], the interaction between Water[水] and Fire[火] were considered more important.

Conclusions :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study of medicine and Changes[易] of Korea could be grasped through analysing the 64 trigrams in medical texts of each period in Joseon. Further research with the field of History of Changes studies is much anticipated.

Key words : Iching, trigram, Uibangyuchwi, Donguibogam, Somundaeyo, Gyeokchigo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February 4, 2022), Revised(February 11, 2022), Accepted(February 11, 2022)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전통적으로 오래 전부터 醫學 분야에서 易學을 다루어 왔으나¹⁾ 『周易』의 十翼에 포함된 상세한 내용의 수준까지 접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陰陽五行論과 天人相應論을 중심으로 卦象 또는 卦德을 초보적으로 대응하거나 消息卦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²⁾, 明代에 이르러서야 인체의 생명현상을 易學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³⁾. 그러나 易學에 밝았던 明代 張介賓의 『景岳全書』나 『類經』 등을 살펴봐도 각 卦象을 전체적으로 인식하여 의학 지식에 적용한 경우가 많았으며⁴⁾, 明代에 이르러 命門學派에서 易學의 원리를 보다 세밀하게 다루기 이전까지는 『周易』의 象傳, 象傳, 爻辭 등 자세한 내용들이 의학적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 왔다가보다, 개인적 학문 수준에 따라 일부 언급되는 정도였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⁵⁾ 한국의 여러 醫書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서 주로 하나의 卦 전체의 의미를 활용하여 의학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醫易學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卦를 중심으로 易學을 醫學에 적용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시대별로 다른 배경 하에서 드러나는 특징들과 그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특정 卦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더라도 64卦 가운데 어떠한 것을 채택하였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술 당시 醫學의 특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주요 醫書에 나타난 64卦 중심의 기술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역학과 관련이 깊은 醫書들을 선택하여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고 시

대별 대표 醫書를 다룬 이유는, 당시 한국의 주류 醫學에서 卦 중심의 易學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흐름의 대강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이며, 한국 易學의 역사 자체를 살피는 것과는 연구의 목적이 다르다. 우선, 조선시대 전기, 중기 후기의 전반에 걸쳐 간행되었던 주요 醫書인 『醫方類聚』⁶⁾, 『東醫寶鑑』⁷⁾, 『素問大要』⁸⁾ 등과 李濟馬의 철학서인 『格致彙』⁹⁾에 기재된 64卦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醫方類聚』는 세종 25년(1443년)경부터 성종 8년(1477년)에 걸쳐 완성된 조선 최대의 의학백과사전으로, 당시 조선 전기까지 내려오던 대부분의 醫書들을 망라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후에 다시 집성한 266권 264책의 대규모 전집이다. 그 가운데 기재되어 있는 기초자료들의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선별하여 배열한 편집의 의도와 배경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東醫寶鑑』은 조선 중기인 1613년에 간행된 대표적인 醫書로서 金元四大家의 陰陽五行 및 藏象 중심의 辨證論治를 종합적으로 계승하였고, 『醫方類聚』에 비하여 보다 방대한 분량의 의학지식을 명확한 편집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서적이다. 精氣神을 중심으로 인체와 우주를 연결하는 세계관의 틀을 제시하였고 『黃帝內經』에 담겨져 있는 한의학의 근본적인 밑바탕 위에 한국적 현실에 맞는 의학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위한 교과서로서 또한 일반인을 위한 의학 교양서적으로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素問大要』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儒醫인 李圭峻(1855~1923)의 저서로서 『黃帝內經素問』을 해설한 서적이다. 왕명에 의하여 대규모의 팀이 구성되어 저술하기 시작한 『東醫寶鑑』과 달리 개인의 저작으로서 대비되며, 또한 조선 후기의 유학을 수학한 李圭峻이 가지고 있었던

1) 金東主. 黃帝內經과 周易의 中心思想比較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p.33.
2) 丁彰炫. 內經의 月令(四時)-신체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의 해석.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9. 12(2). p.89.
3) 白裕相. 易學의 醫學의 適用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3). pp.98-99.
4) 김대진. 張介賓 의학의 철학적 고찰. 東義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7. pp.62-65.
5) 白裕相. 易學의 醫學의 適用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3). p98.

6) 『醫方類聚』는 세종 25년(1443년)경부터 성종 8년(1477년)에 걸쳐 완성된 의학백과사전임.
7) 『東醫寶鑑』은 許浚 등에 의하여 1613년에 간행된 조선의 대표적인 醫書임.
8) 『素問大要』는 조선후기 儒醫인 李圭峻(1855~1923)이 『黃帝內經素問』을 해설한 서적임.
9)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기 이전에 간행한 철학서로서 事心身物의 四象을 바탕으로 본인의 인체관,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 내용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였음.

유학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格致彙』는 李濟馬의 저작으로 『東醫壽世保元』을 완성하기 전인 19세기 말 10여년에 걸쳐 작성한 철학서이다. 李濟馬 본인이 四象醫學을 세우기 위하여 구상한 인체관, 우주관 등이 담겨져 있어서, 비록 醫書는 아니나 四象醫學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周易』의 여러 卦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록 그 대상이 64괘로 한정되어 있어서 易學 전반을 다루지는 않으나, 占書로서의 『周易』 형성의 역사가 실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의 문제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우주와 인체를 바라보는 오래된 세계관 또는 인체관의 전통,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太極, 陰陽五行 등의 시공간적 특성 또는 운동변화의 원리 등이 64卦의 내용을 통하여 조선의 주요 醫書들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국내에서 吳世禎의 “易이 韓醫學의 形成에 끼친 影響”¹⁰⁾, 金憲의 “否卦의 활용을 중심으로 본 醫林撮要 속의 易學思想”¹¹⁾ 등이 있는데, 전자는 역사적으로 易學이 한국 韓醫學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탐구하지 못하였으며, 후자는 특정 醫書에 기재된 특정 卦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한국 醫易學의 계통적 특성을 다루지는 않았다. 국외에서 한국 韓醫學의 易學的 특징을 여러 醫書 별로 고찰한 연구 성과는 아직 없다.

조선시대 주요 醫書 선정에 있어서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는 64괘 관련 내용이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성이 많은 『格致彙』를 참고로 대상에 포함하였다. 전체적으로 관련 내용이 많지 않은 한계점으로 인하여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초기 연구로서 개략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다 넓은 의학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本論

1. 『醫方類聚』의 64卦 관련 내용

『醫方類聚』에는 乾卦, 坤卦, 屯卦¹²⁾, 蒙卦¹³⁾, 蠱卦, 復卦¹⁴⁾, 坎卦, 離卦, 震卦, 艮卦, 巽卦, 兌卦, 既濟卦¹⁵⁾, 未濟卦¹⁶⁾ 등 총 14개의 卦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 우주 변화와 乾坤卦의 설명

「養性門·寶丹要訣·上清真人魏伯陽註·大極第五」에서는 聖人이 鼎器를 세워 우주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二儀를 天地, 乾坤, 陰陽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養性門·寶丹要訣·上清真人魏伯陽註·論丹鼎位第十九」에서도 이 鼎이 곧 乾坤을 본뜬

- 12)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b%91%94%ea%b4%98 : 上坎下震의 卦로 天地가 교합하여 만물을 낳을 때의 어려운 과정을 상징한다.
- 13)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b%aa%bd%ea%b4%98 : 上艮下坎의 卦로 산 아래 협함이 있어서 아직 몽매하나 점차 나아지는 과정을 상징한다.
- 14)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b%b3%b5%ea%b4%98 : 上坤下震의 卦로 一陽이 始生하여 회복하는 것을 상징한다.
- 15)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a%b8%b0%ec%a0%9c%ea%b4%98 : 上坎下離의 卦로 水火가 서로 교합하는 것을 상징한다.
- 16)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b%af%b8%ec%a0%9c%ea%b4%98 : 上離下坎의 卦로 아직 서로 소통하지 못한 상황을 상징한다.

10) 吳世禎. 易이 韓醫學의 形成에 끼친 影響. 慶山大學校大醫院 碩士學位論文. 1994.

11) 金憲. 否卦의 활용을 중심으로 본 醫林撮要 속의 易學思想. 韓國醫史學會誌. 2008. 21(1).

것이라고 하였다¹⁷⁾.

故聖人先立鼎器，以象天地，日月星辰，四時五行，因鼎而立，燒鍊成藥。二儀者，天地也，乾坤也，陰陽也。且創立天地，乃立陰陽，而化育人物也。(醫方類聚·養性門·寶丹要訣·上清真人魏伯陽註·大極第五)¹⁸⁾

또한 「養性門·寶丹要訣·五方歌一道」에서는 五方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東方에서는 乾坤의 운동을 일으켜 八卦를 순환시키고, 南方은 性情이 乾坤이 조화를 이룬 것과 같아서 본체가 陰陽을 합한 것의 힘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들은 근원적인 우주의 변화 가운데 乾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東方... 時地爲胎重造化，運動乾坤巡八卦... 南方... 性情乾坤造化齊，體合陰陽力同一。(醫方類聚·養性門·寶丹要訣·五方歌一道)¹⁹⁾

2) 五臟에 대한 八卦 배속

「五藏門·簡易方·五藏像位」에서는 肝心脾肺腎의 五臟에 대하여 八卦를 배속하였으며 이는 文王後天 八卦圖의 방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²⁰⁾. 「上應」에 대비하여 「下合」이라 표현한 것도 天圓에 대비되는 地方의 방위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단, 中央土에는 坤卦를 배속하였는데 土가 至陰으로서 陰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배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腎의 경우는 坎卦를 배속하면서도, 左腎과 右命門을 설명하면서 坎離의 자리에 모두 속

한다고 하였다.

肝名龍煙，字含明，號將軍之官。於五行爲木，故其體狀有枝葉也... 上應歲星，下合震卦，律中太簇。

心名丹元，字守靈，號帝王之尊，爲一身之主。於五行爲火，故其體狀圓赤，如蓮苞未開之質也... 上應熒惑，下合離卦，律中中呂。

脾名常在，字魂停，號諫議之官。於五行爲土，故其形像馬蹄。居胃之下，以消磨水穀也... 上應鎮星，下合坤卦，律中應鍾。

肺名皓華，字虛成，號相傳之官。於五行爲金，故位處上焦，狀如懸磬，而五藏之聲音，皆從肺出也... 上應太白，下合兌卦，律中夷則。

腎名玄冥，字號作強之官。於五行爲水，處於下，爲五藏之根，一身之本也。腎有兩枚，重一斤一兩，其左者爲腎，屬壬，右者爲命門，屬癸，女子以右者爲腎，左者爲命門，男子命氣爲根，傳丹田，屬壬癸之位，女子命氣爲根，傳血海，通三焦，屬坎離之位... 上應辰星，下合坎卦，律中黃鍾。(醫方類聚·五藏門·簡易方·五藏像位)²¹⁾

「五藏門·五藏六腑圖」에서도 각 五臟이 兌卦, 離卦, 震卦, 坤卦, 坎卦 등 五方の 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방위 배속은 「五藏門·簡易方·五藏像位」의 내용과 동일하다.

夫肺者，兌之氣，金之精，其色白，其象如懸磬，其神形如白獸。肺生魄，化爲玉童，長七寸，素衣持兵杖來往於肺府也... 夫心者，離之氣，火之精，其色赤，其如垂蓮，其神形如朱雀鳥。心生神，化爲玉女，長八寸，錦衣持玉英，每出入於心府... 夫肝者，震之氣，木之精，其色青，其象懸如匏，其神形如青龍。肝生魂，化爲二玉童，一青衣，一黃衣，各長九寸，持玉漿出於肝藏... 夫脾者，坤之氣，土之精，其色黃，其象如復盆，其神形如鳳。脾生意，化爲一玉女，長七寸，循環於脾藏... 夫腎者，坎之氣，水之精，其色黑，其象如懸石，其神形如白鹿。兩頭生智，化爲玉童，長一尺，出入於腎藏。(醫

17) 盛增秀, 陳勇毅, 王英 重校. 醫方類聚(9).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07. : 夫至藥有九鼎, 壹鼎自有壹世界, 天地日月, 四神五行, 二拾八宿有生之路. 鼎者, 象乾坤離其卦.

18) 盛增秀, 陳勇毅, 王英 重校. 醫方類聚(9).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04.

19) 盛增秀, 陳勇毅, 王英 重校. 醫方類聚(9).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02.

20) 金明賢. 臟腑와 三陰三陽의 八卦 配屬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6. p.28, pp.36-46. : 漢代 초기 『周易』에 五行說을 도입한 京房(B.C.77-37)의 五行 방위 별 八卦 배속도 이와 유사하다.

21) 東醫科學院 校閱監修. 醫方類聚(1).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p.223-224.

方類聚·五藏門·五臟六腑圖)²²⁾

3) 坎卦, 離卦, 既濟卦, 未濟卦 관련 내용

「養性門·寶丹要訣·論交媾及九還七返火候日月之道」에서는 坎離(男女)의 交媾로부터 시작하여 壹元(一元)의 氣가 우주를 운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子 또는 寅으로부터 申까지, 坎으로부터 坤까지 壹元의 氣가 운행을 시작하게 되며 60일을 반복하면서 1년을 만들어 나간다.

經云, 本在交媾, 定致始先. 聖人以坎男離女配合, 日居諸精彩潛媾, 盡壹元氣而成夔. 契云, 元年乃五滋. 元年者, 六十日也, 故爲壹元之氣者也. 於是建寅之辰, 終坎於申, 爲七返者也. 自子及坤爲九還轉也. 九還七返, 畢於此矣... 故聖人託易象立卦節. 參同契云, 此蒙明受朝昏, 每日朝用屯卦²³⁾暮用蒙卦²⁴⁾. 既未庶愆於晦爽, 既濟未濟始終用事. 餘卦用之, 各自有日, 其月卦日卦, 例之如後. (醫方類聚·養性門·寶丹要訣·上清真人魏伯陽註·論交媾及九還七返火候日月之道第十五)²⁵⁾

또한 같은 편에서 『參同契』를 인용하여 屯卦와 蒙卦, 既濟卦와 未濟卦 사이에서 氣의 변화가 끝나고 시작됨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水火의 交媾로부터 기의 운행이 시작하여 既濟와 未濟를 거치면서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總論一·簡易方·五常大論」에서도 前陰과 後陰을 설명하면서 男女의 水火가 上下로 바뀌어 있는 것이 未濟와 既濟의 象과 같다고 하였다.

二陰者, 前後便也... 內經云, 北方黑色, 入通於腎, 開竅於二陰. 二陰者, 腎之外竅也. 前曰溲便, 精血亦自此道出. 故男子水令居下, 火令居上, 女子水令居上,

火令居下. 所以男子由此分而爲水火未濟之卦²⁶⁾, 女子由此分而爲水火既濟之卦也. 後曰肛門, 肛門猶車之軛也, 爲肺下口, 號爲通事吏. (醫方類聚·總論·簡易方·五常大論)²⁷⁾

「養性門·寶丹要訣·月」에서는 日(陽)과 月(陰)의 작용을 각각 坎과 離로 상징하고, 坎離 二氣의 交合에 의하여 陰陽이 뒤섞이며 운동 변화하는 것을 『參同契』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日月二用者, 爲藥物爲匡廓. (契云, 坎離匡廓.) 圓曜金鼎, (金鼎與匡廓義同也.) 考積參同契云, 水土金參物同耳. 坎離相配合爲之也. 坎爲陰, 主月, 離爲陽, 主日. 二氣交合於鼎之內, 舒光照曜, 象日月, 連還六合之中, 世人不多曉, 金鼎以金銀爲之, 此大悞矣. 故契云, 坎戌月精, 離巳日光, 日月爲之易. 此論日月之二用矣. (醫方類聚·養性門·寶丹要訣·上清真人魏伯陽註·月第十三)²⁸⁾

또한 一陽의 元氣가 始生하면서 萬物의 造化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養性門·寶丹要訣·大易」에서는 復卦에 비유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玄功歸壹, 萬事生焉.”이라 표현하였다.

夫大易者, 玄元始氣, 造化之妙用也. 處其渾沌, 玄素胞胎, 冥通其形, 含和眞精, 燥確失迹, 虛無有形, 於人無味, 能親所親, 日月然水流濕, 火就燥. 道, 無親無跡, 無好無醜, 人若通亦通, 人道相通, 超凡入聖謂之道. 故玄者, 人之不味, 不知玄育白金之理. 當屯陽處五陰之下, 初九潛龍之位也²⁹⁾. 玄功歸壹, 萬事生焉, 妙用通功, 眞無自杵, 以白金名. (醫方類聚·養性門·寶丹要訣·上清真人魏伯陽註·大易第一)³⁰⁾

22) 東醫科學院 校閱監修. 醫方類聚(1).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p.208-216.

23) 屯卦: 『醫方類聚』에는 ‘此卦’로 되어 있으나 形近之誤로 보인다.

24) 潘啟明. 周易參同契通析. 上海. 上海翻譯出版公司. 1990. p.9. : 朔旦屯直事, 至暮蒙當受. (周易參同契·大易總敘章)

25) 盛增秀, 陳勇毅, 王英 重校. 醫方類聚(9).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07.

26) 水火未濟: 水火未濟의 잘못으로 보인다.

27) 東醫科學院 校閱監修. 醫方類聚(1).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37.

28) 盛增秀, 陳勇毅, 王英 重校. 醫方類聚(9).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06.

29) 陰陽 爻의 상하 배치로 보아 復卦에 해당한다.

30) 盛增秀, 陳勇毅, 王英 重校. 醫方類聚(9).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03.

4) 의학적 내용에 대한 卦의 설명

『醫方類聚』 내에서 구체적인 의학 지식을 卦를 통하여 설명한 부분은 매우 드물다. 「養性門·三元延壽書·疑惑」에서 蠱病의 기전에 대하여 蠱卦의 특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書云, 疑惑不已, 心無所主, 正炁不行, 外邪干之, 失寐忘食, 沈沈默默, 氣血以虛, 漸爲虛勞. 春秋秦侯有疾, 秦醫和視之曰, 不可爲也, 疾如蠱. 趙孟曰, 何謂蠱. 對曰, 淫溺惑亂之所生也. 於文血蟲爲蠱, 在易女惑男, 風落山, 謂之蠱. 其卦巽下艮上, 巽爲長女爲風, 艮爲少男爲山, 少男而悅長女, 非匹, 故惑, 山木得風而落也.

(醫方類聚·養性門·三元延壽書·疑惑)³¹⁾

즉, 少男인 艮卦(山)가 長女인 巽卦(風)를 좋아하는 것은 배필이 아니므로 미혹하게 만드니, 결국 나무에 바람이 불어 잎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蠱病은 후대에 蟲, 濕熱 등으로 인한 복부 또는 하복부의 통증 또는 생식기 관련 염증을 의미하였으나, 고대에는 房事 과도로 인한 여러 신체적 증상과 심리 이상 상태까지 포괄한 병이었다.

이밖에 처방명에 卦名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며³²⁾, 의학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卦의 원리를 활용해야 함을 설명하기도 하였다³³⁾. 기타 주술의 하나로서 乾坤을 기술한 예가 있다³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醫方類聚』에서는 乾坤卦를 중심으로 우주의 변화를 일부 설명하고는 있으나, 鼎器를 중심으로 하는 道家의 內丹術에 초

점이 모아져 있으며, 『參同契』를 인용한 부분도 이러한 內丹術과 관련이 있다³⁵⁾. 五行 또는 五臟에 대한 八卦의 배속은 주로 文王後天八卦圖의 방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醫方類聚』 저작 당시까지 이러한 전통이 깊게 이어져 내려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參同契』의 기본 원리는 인체 내 氣의 순환을 바탕으로 하므로 坎離의 陰陽 순환 속에서 屯卦와 蒙卦, 既濟卦와 未濟卦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復卦 관련 언급도 있었다. 이에 비하여 의학적 내용과 卦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한 부분은 드물었다.

2. 『東醫寶鑑』의 64卦 관련 내용

『東醫寶鑑』에는 乾卦, 坤卦, 泰卦³⁶⁾, 否卦³⁷⁾, 剝卦³⁸⁾, 復卦, 坎卦, 離卦, 震卦, 兌卦, 既濟卦 등 총 11개의 卦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 五臟의 八卦 배속

『內景篇·五臟六腑』에는 각 五臟 별로 物類를 나열하고 있는데, 『醫方類聚』에서 文王後天八卦圖의 방위 배치에 따라 五臟에 八卦를 대응한 내용과 동일하다. 단, 肝屬物類 부분에서 “在卦爲震”은 옳기

35) 임명진. 『周易參同契』 연구. 大田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0. pp.408-410.

박종태. 주역참동계의 내단학과 양생의 원리. 公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20. pp.114-115.

36)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6%b3%b0%e5%8d%a6 : 上坤下乾의 卦로 天地가 교합하여 만물이 소통하는 것을 상징한다.

37)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5%90%a6%e5%8d%a6 : 上乾下坤의 卦로 天地의 기운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 막혀 있는 것을 상징한다.

38)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b%b0%95%ea%b4%98 : 上艮下坤의 卦로 陰이 陽을 이겨서 道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한다.

31) 盛增秀, 陳勇毅, 王英 重校. 醫方類聚(9).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15.

32) 盛增秀, 陳勇毅, 王英 重校. 醫方類聚(9).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02. : 紫霞丹... 既濟朱砂丹...

33) 東醫科學院 校閱監修. 醫方類聚(1).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12. “夫爲醫者, 先須識甲乙素問, 明堂針經, 俞穴流注, 本草藥對, 三部九候, 五臟六腑, 表裏虛實, 陰陽盛衰, 諸家方論, 並須精熟. 然後涉獵詩書, 該博釋老, 全之四教, 備以五常, 明希夷恬淡之門, 達喜捨慈悲之旨, 儼盡窮其大體, 卽自得其重玄, 嘗猶測影用圭, 乾坤不能逃其數, 宣疑設卦, 倚伏洞可究其源, 奚異通神, 無殊造聖.”

34) 東醫科學院 校閱監修. 醫方類聚(1).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128. “九日導乾坤東覆二句道法人日用自服煉.”

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肝屬物類. 在天爲風, 在地爲木, 在體爲筋, 在藏爲肝, 在色爲蒼... 心屬物類. 在天爲熱, 在地爲火, 在卦爲離, 在體爲脉, 在藏爲心, 在色爲赤... 脾屬物類. 在喘爲濕, 在地爲土, 在卦爲坤, 在體爲肉, 在藏爲脾, 在色爲黃... 肺屬物類. 肺在天爲燥, 在地爲金, 在卦爲兌, 在體爲皮毛, 在藏爲肺, 在色爲白... 腎屬物類. 腎在天爲寒, 在地爲水, 在卦爲坎, 在體爲骨, 在藏爲腎, 在色爲黑... (東醫寶鑑·內景篇·五臟六腑)³⁹⁾

本草 가운데 荷葉에 대하여 足少陽甲膽의 陽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震卦의 體를 본떴다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방위 배속과 관련이 있다.

橋連枳朮丸... 初末悟荷葉飯爲丸之理, 老年味之始得, 可謂奇矣. 夫荷葉之物, 中央空, 象震卦之體, 人感之, 生足少陽甲膽, 先化萬物之根蒂也. 飲食入胃, 榮氣上行, 卽少陽甲膽之氣也. 荷葉色青, 形乃空, 象風木者也. 食藥感此氣之化, 胃氣何由不上升乎. 以爲引用, 可謂遠識深慮合於道也. 《東垣》 (東醫寶鑑·雜病篇·內傷·食傷消導之劑)⁴⁰⁾

2) 乾卦와 坤卦 관련 내용

『內景篇·身形·形氣之始』에서는 『乾鑿度』를 인용하여 태초의 天形이 乾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고, 乾坤과 太極의 關係를 설명하면서 합하여 말하면 太極이고 나누어 말하면 乾坤이며 太極은 곧 混淪이고 乾坤은 곧 天地라고 하였다.

乾鑿度云, 天形出乎乾, 有太易, 太初, 太始, 太素. 夫太易者, 未見氣也. 太初者, 氣之始也. 太始者, 形之始也. 太素者, 質之始也. 形氣已具而病, 病者瘵, 瘵者病, 病由是萌生焉, 人生從乎太易, 病從乎太素. 參同契註曰形氣未具曰鴻濛, 具而未離曰混淪, 易曰易有太極, 是生兩儀. 易猶鴻濛也. 太極猶混淪也. 乾坤者, 太極之變也. 合之爲太極, 分之爲乾坤, 故合乾坤而言之.

39)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p.296-314.

40)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898.

謂之混淪. 分乾坤而言之, 謂之天地. 列子曰太初, 氣之始也. 太始, 形之始也. 亦類此. (東醫寶鑑·內景篇·身形·形氣之始)⁴¹⁾

『雜病篇·天地運氣·論天地六氣』에서는 『素問入式運氣論奧』를 인용하여 『素問』運氣篇의 三陰三陽과 12支 배속을 설명하면서 天真과 坤元 즉 乾坤의 二氣가 결합하여 이러한 六氣 변화를 일으킨다고 설명하였다.

經曰, 顯明之右, 君火之位者, 其緒, 是也. 其不同之緒, 乃天真坤元, 二氣相因而成焉. 故天之六元氣反合, 地十二支, 以五行正化對化. 爲其緒則少陰司子午, 太陰司丑未, 少陽司寅申, 陽明司卯酉, 太陽司辰戌, 厥陰司巳亥. 天氣始終之因如是而已... 『入式』 (東醫寶鑑·雜病篇·天地運氣·論天地六氣)⁴²⁾

또한 『雜病篇·天地運氣·天氣流行』에서는 『周易·繫辭傳』을 인용하여 乾一이 實하고 坤二가 虛한 것을 각각 大, 廣이라 하고, 朱子의 말을 인용하여 견고한 땅이 도리어 虛하여 하늘의 氣가 그 속을 流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內景篇·身形·人心合天機』에서도 천체의 運행을 설명하면서 일부 乾坤을 언급하고 있다⁴³⁾.

胡用之曰, 易云, 乾一而實, 故以質言而曰大, 坤二而虛, 故以量言而曰廣. 朱子曰, 此兩句設得極分曉. 所以設乾一而實, 地雖堅實, 然却虛. 天之氣流行乎地之中, 皆從裏面發出來... [正理]. (東醫寶鑑·雜病篇·天地運氣·天氣流行)⁴⁴⁾

종합해 보면, 乾과 坤의 상호 關係와 運動변화는 마치 끊임없이 열고 닫는 형상과 같은데, 이를 『內

41)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58.

42)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710.

43)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64. : 橐籥歌曰, 天上日頭地下轉, 海底嬋娟天上飛, 乾坤日月本不運, 皆因斗柄轉其機, 人心若與天心合, 顛倒陰陽只片時. (東醫寶鑑·內景篇·身形·人心合天機)

44)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p.706-707.

景篇·氣·氣爲呼吸之根』에서는 『周易·繫辭傳』을 인용하여 ‘一闔一闢’으로 설명하였고, 張橫渠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乾坤이 闔關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易曰,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程伊川曰, 涵養之道, 出入之息者, 闔關之機而已. 又曰, 闔關往來, 見之鼻息. 張橫渠曰, 人之有息, 蓋剛柔相摩, 乾坤闔關之象也. 朱紫陽調息箴曰, 氤氳開闔, 其妙無窮, 誰其屍之, 不宰之功. (東醫寶鑑·內景篇·氣·氣爲呼吸之根)⁴⁵⁾

이와 같이 陰陽의 변화를 주도하는 乾坤의 象은 계절상으로 여름과 겨울에 氣가 차오르고 허해지는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雜病篇·天地運氣·陰陽之氣升降盈虛』에서 純陽乾卦와 純陰坤卦를 각각 盈, 虛로 표현하였다.

自此以後, 陽氣升入陽位, 亦如前, 漸漸升至夏至之月, 并前計一百八十日, 共升八萬四千里, 乃到天也. 此時, 陽中又有陽, 爲純陽乾卦. 其氣變溫爲熱曰夏, 萬物茂盛之時, 故曰盈也... 自此以後, 陰氣降入陰位, 亦如是, 漸漸降至冬至之日, 共前計一百八十日, 共降八萬四千里, 乃到地也. 此時, 陰中又有陰, 爲純陰坤卦. 其氣變涼爲寒曰冬, 萬物收藏之時, 故曰虛也. 《括眞》 (東醫寶鑑·雜病篇·天地運氣·陰陽之氣升降盈虛)⁴⁶⁾

또한 乾坤의 陰陽 특성은 사람에게는 남녀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太極圖說』에서는 “坤道成女, 乾道成男.”이라 하였다.

丹溪色慾箴曰, 惟人之生, 與天地參, 坤道成女, 乾道成男, 配爲夫婦, 生育收寄, 血氣方剛, 惟其時矣, 成之以禮, 接之以時, 父子之親, 其要在茲. (東醫寶鑑·內景篇·身形·先腎格言)⁴⁷⁾

45)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91.
46)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707.
47)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70.

임신 이후 胎가 형성되는 것도 乾道와 坤道에 의한 것이며 남녀의 성별이 결정되는 것이 이 시기로 보았다.

手心主心包絡脈養胎, 又三九二十七日, 卽三月數, 百日間, 變成男女形影, 如清鼻涕中, 有白絨相似, 成人形鼻, 與雌雄二器, 先就分明. 其諸全體, 隱然可悉斯, 謂之胎. 乃太極之乾道成男, 坤道成女也... [入門]. (東醫寶鑑·雜病篇·婦人·十月養胎·三月)⁴⁸⁾

東垣曰, 經斷後一二日精勝血者, 成男, 四五日血勝精者, 成女, 此亦未瑩. 易曰, 乾道成男, 坤道成女, 夫乾坤, 陰陽之性情也. 左右, 陰陽之道路也. 男女, 陰陽之儀象也. 父精母血感而會精之泄 陽之施也, 能攝之陰之化也. 精成其子 此萬物之資 始於乾元也. 血成其胞 此萬物資生於坤元也. (東醫寶鑑·雜病篇·婦人·雙胎品胎)⁴⁹⁾

그밖에 사람이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元陽眞氣가 純陽의 卦인 乾卦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⁵⁰⁾, 脈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乾道가 生生不息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⁵¹⁾. 坤道의 특성을 또한 五行 가운데 土에 배속하였는데 五臟 중 脾가 여기에 대응되며⁵²⁾, 12경락 가운데 표리 관계인 足陽明胃經도 이에 해당한다⁵³⁾. 女子胞⁵⁴⁾도 坤土에 배속되며

48)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226.
49)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228.
50)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64. : 延壽書曰, 人者物之靈也. 壽本四萬三千二百餘日卽一百二十歲. 洪範. 一曰壽百二十歲. 元陽眞氣, 本重三百八十四銖一斤也. 內應乎乾, 乾者, 純陽之卦也. 人晝夜動作施泄, 散失元氣, 不滿天壽, 至六陽俱盡, 卽是全陰之人易死也. (東醫寶鑑·內景篇·身形·學道無早晚)
51)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621. : 河間云, 脈者, 血氣之先, 斯論得之矣. 人身之脈, 血氣之所爲, 而不知所以周流不息者, 正乾道乾乾之意. 亦猶理之寓乎氣, 所以爲血氣之先, 先之一字, 厥有旨焉. 《綱目》 (東醫寶鑑·外形篇·脈·脈者血氣之先)
52)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761. : 夫牛, 坤土也. 黃土之色也. 以順爲德而效法乎, 健以爲功者牡之用也... 《東垣》 (東醫寶鑑·雜病篇·吐·倒倉法)
53)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523. : 牙齒, 是手足陽明脈之所過. 上齦隸於坤土, 乃足陽明胃之所貫絡也, 止而不動. 下齦嚙物, 動而不休, 手陽明大腸之脈所貫絡

紫河車에 대한 설명에서도 ‘乾坤之橐籥’이라 칭하였다⁵⁵⁾. 기타 導引法의 설명 가운데에서도 일부 乾卦과 八卦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⁵⁶⁾.

3) 坎卦와 離卦 관련 내용

「內景篇·津液·積氣生液」에서 程子の 말을 인용하여 一의 坎水가 안으로부터 생기면서 생명 탄생 과정 중 가장 먼저 생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心의 움직임도 天一生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程子曰, 坎水也. 一始於中, 有生之最先者也. 魯齋鮑氏曰, 物之初生, 其形皆水, 水者萬物之一原也. 或問曰, 天一生水, 亦有可驗乎. 曰人之一身, 可驗矣. 貪心動則津生, 哀心動則淚生, 愧心動則汗生, 慾心動則精生. 方人心寂然, 不動之時, 則太極也. 此心之動, 則太極動而生陽, 所以心一動而水生, 卽可以爲天一生水之證也. (東醫寶鑑·內景篇·津液·積氣生液)⁵⁷⁾

坎水는 五行 가운데 水에 배속되며 腎에 응하고⁵⁸⁾, 離火는 火에 배속되어 心에 응한다⁵⁹⁾. 이러한 水火 心腎의 교류에 의하여 人體의 氣는 流行하여 陰陽 消息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해부학적으로 腎系가 心系에 이어져 있는 관계도 上下 坎離의 相感의 증거로 설명하고 있다⁶⁰⁾.

- 也. 《東垣》(東醫寶鑑·外形篇·牙齒·上下齶屬手足陽明)
- 54)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336. : 胞者, 一名赤宮, 一名丹田, 一名命門. 男子藏精施化, 婦人繫胞有孕, 俱爲生化之原, 非五行也. 非水亦非火, 此天地之異名也. 象坤土之生萬物也. 《東垣》(東醫寶鑑·內景篇·胞·胞形象)
- 55)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391. : 河車者, 天地之先, 陰陽之祖, 乾坤之橐籥, 鉛汞之匡廓. 胚臍將兆, 九九數足, 我則臍而生之, 故謂之河車. 《得效》(東醫寶鑑·湯液篇·人部·婦人胞衣조식나훈안예)
- 56)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66. : 麗仙有歌曰, 閉目冥心坐... 邪魔不敢近, 夢寐不能昏, 寒暑不能入, 疾病不能進, 子後午前作, 造化合乾坤, 循環次第轉, 八卦是良因. (東醫寶鑑·內景篇·身形·按摩導引)
- 57)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272.
- 58)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314.
- 59)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300.
- 60)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419. : 廻生

入門曰, 人身之氣流行, 每子時, 自左脚心涌泉穴起陽, 循左足腹脇手, 而上至頭頂顛門, 午位而止. 午時自頂門, 循右手脇腹足, 而下至右脚心而止. 是坎離爲陰陽消息也. (東醫寶鑑·內景篇·氣·氣爲衛衛於外)⁶¹⁾

腎形如紅豆, 相竝如環, 曲貼脊脊膜中, 裏白外紫, 兩腎二系相通下行, 其上則與心系通而爲一, 所謂坎北離南, 水火相感者也. 《入門》. (東醫寶鑑·內景篇·腎臟·腎形象)⁶²⁾

처방명에서 坎卦와 離卦가 함께 쓰인 경우로는, 坎離丸⁶³⁾, 四物坎離丸⁶⁴⁾, 先坎離丸⁶⁵⁾, 後坎離丸⁶⁶⁾, 坎離膏⁶⁷⁾, 清離滋坎湯⁶⁸⁾, 坎離既濟丸⁶⁹⁾ 등이 있다. 그밖에 「雜病篇·消渴·消渴由坎火衰少」에서는 “消渴, 由坎火衰少.”라고 하였는데⁷⁰⁾, 이때 坎火는 坎卦 속에 간직되어 있는 火를 말하며 곧 下焦의 腎陽에 해당한다.

4) 泰卦와 否卦 관련 내용

天地의 기운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陽氣가 升發하는 봄의 계절이 泰卦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또한 人體의 陰陽이 승강하면서 서로 사귀는 것을 天

神膏. 治陰證, 大小便不通數日, 危急者用之, 非急勿用. 牡蠣, 陳粉, 乾薑炮, 各一兩. 右爲細末. 男病用女人唾調, 手內擦熱, 緊掩二卵上, 得汗出愈. 女病用男子唾調, 手內擦熱, 緊掩二乳上, 得汗出愈. 蓋卵與乳, 乃男女之根蒂, 坎離之分屬也. 《海藏》(東醫寶鑑·內景篇·大便·大便不通)

- 61)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90.
- 62)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314.
- 63)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82, 886, 888.
- 64)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p.657-658.
- 65)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888, 890.
- 66)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888, 890.
- 67)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235, pp.242-243. p.889.
- 68)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p.888-889, p.926.
- 69)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889, 890, 926.
- 70)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040. : 消渴, 由坎火衰少. (東醫寶鑑·雜病篇·消渴·消渴由坎火衰少)

地交의 泰卦에 비유하였는데 치법으로는 痞滿을 치료하는 調養脾胃를 제시하였다.

訣曰, 天地盈虛自有時, 審能消息始知機. 註曰, 天地相去八萬四千里. 冬至之日, 地中有一陽氣上升. 一日升四百六十里二百四十步, 至後五日爲一候, 三候爲一氣, 三氣爲一節, 二節爲一時, 卽春分也. 計九十日, 陽氣共升至天四萬二千里, 正到天地之中. 此時陰中陽半, 爲泰卦. 其氣變寒爲溫, 萬物發生之時, 故爲春也... 《悟眞》(東醫寶鑑·雜病篇·天地運氣·陰陽之氣升降盈虛)⁷¹⁾

香砂養胃湯. 治陰伏陽蓄而爲痞滿, 能調養脾胃, 升降陰陽, 成天地交之泰. 白朮, 陳皮, 半夏, 白茯苓, 各一錢, 香附子, 縮砂, 木香, 枳實, 藿香, 厚朴, 白豆蔻, 各七分,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加味枳朮丸同功. 《回春》(東醫寶鑑·外形篇·胸·胸痞)⁷²⁾

이러한 地天泰卦의 象을 脈診에 적용하여 互脈이라 하였으며⁷³⁾, ‘天地交泰’를 추구하는 처방으로 虛勞를 치료하는 補天大造丸⁷⁴⁾, 交泰丸⁷⁵⁾, 沉香交泰丸⁷⁶⁾ 등을 제시하였다.

易에서 否卦 이후에 泰卦가 오며 否는 의학적으로 痞證을 의미하므로 否卦의 象을 통하여 痞證을 설명하였다. 「雜病篇·寒·厥陰形證用藥」에서는 否의 상태가 泰로 바뀌면서 營衛가 회복되어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若第六七日, 傳厥陰脈, 得微緩微浮, 爲脾胃脈也.

71)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707.

72)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569.

73)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p.740-741. : 人有寸關尺三部之脈, 按之絕無形跡, 而移於手陽明經陽絡與合谷之地, 動者何歟. 曰手太陰肺與手陽明大腸, 一藏一府相爲表裏, 其列缺穴乃二經之絡脈. 故脈從絡而出於陽明之經, 此爲妻乘夫位, 地天交泰, 生成無病之脈, 名曰互脈. 《正傳》(東醫寶鑑·雜病篇·診脈·互脈)

74)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927.

75)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913.

76)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034, 1035.

故知脾氣全不受剋邪, 無所容. 否極泰來, 榮衛將復, 水升火降則寒熱作而大汗解矣. 《活人》(東醫寶鑑·雜病篇·寒·厥陰形證用藥)⁷⁷⁾

天地가 사귀지 못하여 만물이 통하지 못하는 상황이 否이며 곧 痞證이 된다. 인체에서는 中焦에 위치한 脾胃가 승강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며, 陰陽이 서로 도와주어서 승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홀로 승강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하였다.

痞者, 否也. 如易所謂天地不交之否, 內柔外剛, 萬物不通之義也. 物不可以終否, 故痞久則成脹滿而莫能療焉. 《正傳》(東醫寶鑑·外形篇·胸·胸痞)⁷⁸⁾

凡人七情內傷, 六淫外侵, 飲食失節, 房勞致虛, 脾土之陰受傷, 轉輸之官失職, 胃受水穀不能運化, 故陽自升陰自降而成天地不交之否. 《丹心》(東醫寶鑑·雜病篇·脹滿·脹滿之源)⁷⁹⁾

한편 消渴로 인하여 肺의 津液이 고갈되었을 때에도, 陰陽이 서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승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痞證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肺爲五藏華蓋, 若下有燠氣蒸則肺潤, 若下冷極則陽不能升, 故肺乾而渴. 易乾上坤下, 其卦爲否, 陽無陰不降, 陰無陽不升, 故成否也. 譬如釜中有水, 以火煖之, 又以板覆, 則煖氣上騰, 故板能潤. 《本事》(東醫寶鑑·雜病篇·消渴·消渴由坎火衰少)⁸⁰⁾

5) 剋卦와 復卦 관련 내용

「內景篇·身形·學道無早晚」에서 元陽의 眞氣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이유가 陰氣가 부족함에 있음을, 山地剋卦에서 地雷復卦로 순조롭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즉 陰陽 消長의 전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77)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817.

78)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568.

79)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028.

80)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p.1040-1041.

延壽書曰，人者，物之靈也。壽本四萬三千二百餘日，即一百二十歲。洪範，一曰壽百二十歲。元陽眞氣，本重三百八十四銖一斤也，內應乎乾，乾者，純陽之卦也。人晝夜動作施泄，散失元氣，不滿天壽，至六陽俱盡，即是全陰之人易死也。年到八八，卦數已極，汞少鉛虛，欲眞元之復，不亦晚乎。吁，剝不窮則復不返，陰不極則陽不生。(東醫寶鑑·內景篇·身形·學道無早晚)⁸¹⁾

또한 復卦의 상태로 순조롭게 넘어가기 위하여 氣의 승강을 돕는 처방으로 至聖來復丹⁸²⁾을 제시하였다.

至聖來復丹. 治氣不升降，一切危急之證，可冷可熱可緩可急，如中氣上氣，氣痛氣鬱皆效。硝石，硫黃，各一兩，同爲細末，入碗內，以微火溫炒，以柳木篋不住手攪，令陰陽氣相入，不可火太過，恐傷藥力再研極細，名二氣末，太陰玄精石研飛一兩，五靈脂研水飛澄去砂石晒乾，青皮，陳皮，並去白，各二兩。爲末和勻以好醋，打麵糊搜和丸，如豌豆大，每服三十粒，或五十粒，空心粥飲吞下。《局方》(東醫寶鑑·內景篇·氣·通治氣藥)⁸³⁾⁸⁴⁾

6) 既濟卦 관련 내용

水火既濟卦에 대해서는 精泄을 치료하는 導引法을 설명하면서 오래 동안 시행하면 水火既濟의 상태가 되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又法，夜半子時分，陽正興時，仰臥，瞑目，閉口，舌頂上腭，將腰拱起，用左手中指，頂住尾閭穴，用右手大指，頂住無名指根拳着。又將兩腿俱伸，兩腳十指俱攏，提起一口氣，心中存想，脊背腦後，上貫至頂門，慢慢直下，至丹田。方將腰腿手脚，從容放下。如再行照前而陽衰矣。如陽未衰，再行兩三遍。此法不惟速去泄精之疾，久則水火既濟，永無疾病矣。《回春》(東醫寶鑑·內景篇·精·導引法)⁸⁵⁾

또한 소변 赤白濁의 기전을 설명하면서 水火既濟가 되면 거울에 땅이 굳어지듯이 견고하게 되어 白濁이 흐르지 않고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先賢有言，夏則土燥而水濁，冬則土堅而水清，此其理也。水火既濟，則土自堅，其流清矣。小便白濁，蓋脾有虛熱，而腎不足，土邪干水也。《得效》(東醫寶鑑·內景篇·小便·赤白濁)⁸⁶⁾

이상의 의학 관련 내용 이외에 既濟卦에 대한 별다른 기술은 없으며, 既濟丸⁸⁷⁾, 既濟湯⁸⁸⁾, 既濟解毒湯⁸⁹⁾, 既濟解毒丸⁹⁰⁾, 既濟清神散⁹¹⁾, 坎離既濟丸⁹²⁾, 神仙既濟丹⁹³⁾ 등의 처방명으로 사용되었다.

이상 64卦 관련 『東醫寶鑑』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五臟에 배속된 五方의 八卦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술한 반면 본초의 설명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參同契』 등의 內丹術을 통하여 乾坤을 설명하기보다 우주론의 氣 철학을 바탕으로 乾一과 坤二의 두 氣가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생명현상의 一闔一闔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영되어 남녀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坎離도 단순히 水火의 방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心과 腎의 상호 관계를 표현하였으며, 나아가 해부학에서 心系와 腎系가 연결되는 것까지 坎離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기의 상호 운동 변화는 인체 내에서 하나의 순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泰卦, 否卦, 剝卦, 復卦, 既濟卦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否卦의 경우는 임상에서 나타나는 병증의 하나인 痞證의 병리와도 연결되었다. 이

85)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88.

86)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381.

87)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p.330-331, p.374, 376.

88)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886, 949.

89)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644, 879, 1077.

90)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881.

91)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880.

92)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p.888-890, p.926.

93)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p.935-937.

81)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64.

82)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195, 202, 753, 824, 853, 860, 1198, 1198, 1294, 1300.

83)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202.

84)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p.854.

와 같이 상하 水火의 교류와 순환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처방 중에서도 坎離, 既濟, 交泰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다수 활용되었다⁹⁴⁾.

3. 『素問大要』의 64卦 관련 내용

『素問大要』에는 乾卦, 坤卦, 泰卦, 坎卦, 離卦, 巽卦, 兌卦, 既濟卦, 未濟卦 등 총 9개의卦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 乾卦와 坤卦

『素問·金匱真言論』에 나오는 五行歸類를 설명하면서 「說卦傳」을 인용하여 乾卦를 말로 표현하고 또한 「五常政大論」에서도 心畜을 말로 보았으므로, 陽氣가 가장 강한 心에 말이 배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中央 土에 배속된 곤괘에 대해서도 「說卦傳」에서 坤을 소로 표현하였으므로 소가 中央 土에 배속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南方赤色入通於心, 開竅於耳, 藏精於心. 故病在五藏, 其味苦, 其類火, 其畜羊.(羊當作馬, 五常政大論曰心畜馬, 說卦曰乾爲馬, 此從先天也.) 其穀黍, 其應四時, 上爲熒惑星. 是以知病之在脈也. 其音徵, 其數七, 其臭焦. (素問大要·金匱真言論)⁹⁵⁾

中央黃色入通於脾, 開竅於口, 藏精於脾. 故病在舌本, 其味甘, 其類土, 其畜牛.(說卦曰坤爲牛.) 其穀稷, 其應四時, 上爲鎮星, 是以知病在肉也, 其音宮, 其數五, 其臭香. (素問大要·金匱真言論)⁹⁶⁾

그밖에 「素問附說·百病總括」에서는 음양의 闔關 운동을 건곤의 작용으로 표현하였다⁹⁷⁾.

2) 坎卦와 離卦

94) 金憲. 東醫寶鑑 처방의 易學原理 활용에 대한 연구. 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8. pp.39-42.

95)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36.

96)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37.

97)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253. : 陰陽闔關是乾坤.

坎卦의 離卦에 대해서는 『素問·金匱真言論』에 나오는 五行 배속 가운데 北方水에 속하는 坎卦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北方黑色入通於腎, 開竅於二陰, 藏精於腎. 故病在谿.(谿骨之小會) 其味鹹, 其類水, 其畜彘.(說卦曰坎爲豕) 其穀豆, 其應四時, 上爲辰星, 是以知病之在骨也. 其音羽, 其數六, 其臭腐. (素問大要·金匱真言論)⁹⁸⁾

3) 巽卦와 兌卦

『金匱真言論』에서는 文王後天八卦圖 가운데 東方에 위치하고 있는 震卦를 대신하여 巽卦를 배치하여 兌卦와 대비하였다. 兌卦에 대한 설명 가운데 五畜에 대해서는 「說卦傳」에서 兌卦에 羊이 배속되고 「五常政大論」에서도 동일하게 배속된 것을 근거로 말을 양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帝曰五藏應四時, 各有攸受乎. 岐伯曰有. 東方青色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 其病發驚駭, 其味酸, 其類草木, 其畜雞.(說卦曰巽爲雞) 其穀麥, 其應四時, 上爲歲星, 是以春氣在頭也. 其音角, 其數八, 是以知病之在筋也, 其臭臊, 八東方成數下倣此. (素問大要·金匱真言論)⁹⁹⁾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藏精於肺. 故病在背, 其味辛, 其類金, 其畜馬.(馬當作羊, 五常政大論曰肺畜羊, 說卦曰兌爲羊) 其穀稻, 其應四時, 上爲太白星, 是以知病之在皮毛也. 其音商, 其數九, 其臭腥. (素問大要·金匱真言論)¹⁰⁰⁾

4) 既濟卦와 未濟卦

既濟卦와 未濟卦에 대해서는 「藏氣法時論」과 「至眞要大論」에서 陰陽 交濟의 원리를 간단하게 언급하였고, 이어지는 「至眞要大論」의 內傷 要訣에서도 水火의 不交濟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黃帝問曰合人形, 以法四時五行而治, 何如而從, 何

98)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p.37-38.

99)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36.

100)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37.

如而逆，得失之意，願聞其事。岐伯對曰五行金木水火土也，更貴更賤，以知死生，以決成敗而定五藏之氣，間甚之時死生之期也。帝曰願卒聞之。岐伯曰肝主春，足厥陰少陽主治... 腎主冬，足少陰太陽主治。其日壬癸，腎苦燥，急食辛以潤之。開腠理，致津液，通氣也。(心肺欲清涼故用酸苦，肝腎欲溫煖故用辛甘。此陰陽交濟之理也)(素問大要·藏氣法時論)¹⁰¹⁾

熱淫所勝，平以鹹寒，佐以苦甘，以酸收之... 寒淫所勝，平以辛熱，佐以苦甘，以鹹瀉之。(火主寒藥，水主熱藥，風主辛味，燥主苦味，皆陰陽交濟之道也。)(素問大要·至真要大論)¹⁰²⁾

內傷之病因有二，飲食勞倦虛實異，食積胸悶噯氣酸，甚則頭痛下泄穢，勞倦自汗動喘乏，肌熱懊懣身惰怠，不伏水土同內傷，食厥亦似中風類，虛損之疾因房內，五體枯槁色憔悴，潮熱盜汗夢遺精，痰嗽咯血便自利，六證相因最難治，總由水火不交濟，陰平陽秘生乃固，誰識軒岐喫緊意，內傷外感能先辨，百病都來這裏地。(素問大要·素問附說·百病總括)¹⁰³⁾

또한 「素問附說·百病總括」에서도 水火既濟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扶養老人尤慎審，縱縫外感戒三禁，專泥古方如膠瑟，妄恃私胸奈打格，上坎下離爲既濟，不然還請問義畫。(素問大要·素問附說·百病總括)¹⁰⁴⁾

5) 기타 卦에 대한 설명

「陰陽應象大論」에 대한 주석에서 天地가 雲雨를 통하여 交感하는 것을 泰卦의 天地交泰 象에 비유하였다.

故清陽爲天，濁陰爲地，地氣上爲雲，天氣下爲雨，雨出於地氣，雲出於天氣。(觀於雲雨，天地交泰之妙可

見矣。)(素問大要·陰陽應象大論)¹⁰⁵⁾

이상 『素問大要』에 나타난 64卦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乾坤坎離 등의 핵심적인 卦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으며, 五方に 배속된 八卦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여 水火, 陰陽의 交濟에 대한 기술과 天地交泰에 관한 언급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素問大要』에서 인체 상하 陰陽의 交濟와 순환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格致藁」의 八卦 관련 내용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는 64卦 관련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需卦의 爻辭를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¹⁰⁶⁾. 이에 비하여 본인의 철학적 세계관을 정리한 『格致藁』 중에는 四象醫學의 기본 원리와 관련하여 『周易』의 八卦에 대하여 설명하였다¹⁰⁷⁾. 우선, 「反誠箴·巽箴·八卦箴總說」에서는 伏羲先天八卦圖의 방위를 기준으로 인체의 상하좌우에 乾坤坎離의 四卦를 배치하였다.

曰然則身之上下爲乾坤，心之左右爲離坎者，何耶。曰身之實理，直行故，有前後而無左右，心之實理，廣盪故，有左右而無前後。若夫身之左右，橫放，心之上下，出沒，卽私放逸慾之所致也。非擇乎中庸允執厥中之上下左右也。(反誠箴·巽箴·八卦箴總說)¹⁰⁸⁾

이때 伏羲先天八卦圖를 기준으로 간방의 兌, 艮, 巽, 震이 각각 乾, 坤, 離, 坎 등과 짝을 이루게 되

105)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39.

106)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11. pp.694. : 易之需九三爻辭曰需于泥，致寇至。象曰需于泥，災在外也。敬慎不敢也。以此意而做之曰陰虛午熱，背寒而嘔，其病雖險然，死尚在外也。能齋戒其心，恭敬其身，又服好藥不死也。

107) 具德謨, 姜孝信. 格致藁에 나타난 李濟馬의 醫哲學 背景 研究. 濟韓東醫學術院論文集. 1997. 2(1). pp.62-65. 林炳學. 格致藁에 나타난 東武의 易學의 사유체계. 大東文化研究. 2013. 84. pp.282-283.

108) 李濟馬 原著. 池圭鎔 譯解. (東武)格致藁譯解. 서울. 永林社. 2001. p.376.

101)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p.65-66.

102)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223.

103)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251.

104)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p.260.

는데, 상하좌우의 乾坤離坎의 箴은 자신의 내면에서 행해지므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간방의 艮兌震巽의 箴은 남들이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므로 몸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一身立誠於昊天之下，而中庸之道行於昊天之下，乾兌部位，所以形於上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而大學之德行於大地之上，坤艮部位，所以形於下也。

整齊知行之術，其理在左，而可得之術必在於我，離震部位，所以形於左也。

平均財祿之權，其理在右，而可得之權必在於他，坎巽部位，所以形於右也。（反誠箴·巽箴·八卦箴總說）¹⁰⁹⁾

乾坤離坎箴之情僞，我必行欺詐於人之機勢也，存心之戒也。艮兌震巽箴之情僞，人必行欺詐於我之機勢也，守身之戒也。（反誠箴·巽箴·八卦箴總說）¹¹⁰⁾

각각 짝을 이루는 乾兌는 事의 始終이 되고, 坤艮은 物의 本末이 되고, 離震은 心의 急緩이 되고, 坎巽은 身의 先後가 되어, 八卦에 事心身物을 각각 배속하였다.

乾，事之始也，兌，事之終也。坤，物之本也，艮，物之末也。離，心之急圖也，震，心之緩圖也。坎，身之先着也，巽，身之後着也。（反誠箴·巽箴·八卦箴總說）¹¹¹⁾

상하의 乾坤 측은 마음속에 담긴 道와 德이 천지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각각 『大學』과 『中庸』의 가르침에 비유하였고, 그에 비하여 좌우는 마음의 이치가 몸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으로서 각각 術과 權으로 표현하고 이를 좇을 경우 柳下惠와 伯夷의 인물이 됨을 비유하였다. 柳下惠는 남을 생각하는 예절이나 공손함이 없는 인물이고 伯夷는 마음속

이 편협한 특징을 지닌 인물이다¹¹²⁾. 또한 乾坤을 통하여 몸을 극복하였을 때에는 誠身과 敬身을 이루고, 離坎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렸을 때 理心과 利心を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¹¹³⁾.

此箴名義，依倣易象。而乾兌箴，尊道中庸，坤艮箴，欽德大學，離震箴，取則柳下惠，坎巽箴，取則伯夷。（反誠箴）¹¹⁴⁾

또한 太極에서 兩儀, 四象으로 분화되는 과정이 곧 心으로부터, 心身, 事心身物로 분화되는 것이라 하였고¹¹⁵⁾, 八卦나 64卦로 분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근본적으로는 心이요 太極이라고 하였다.

易繫辭之乾坤，以兩儀之乾坤言之也，八卦之乾坤，以八卦之乾坤言之也。六十四卦之乾坤，以六十四卦之乾坤言之也。中央之心，兩儀之心，四象之心，亦類此也。統而言之則六十四卦，皆太極也。六十四卦之三十二卦，皆乾也。八卦，皆心也，不必執一而置疑也。（反誠箴·巽箴·八卦箴總說）¹¹⁶⁾

이상 『格致藁』에 나타난 八卦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인체의 상하좌우에 乾坤離坎의 四卦를 배치한 것은 일견 伏羲先天八卦圖의 방위 배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과 간방의 八卦들은 마음과 몸, 자신과 남의 관계들로 이어지고, 이러한 관계성들은 결국 事心身物의 四象으로 수렴된다. 또한 이와 같이 四象과 八卦, 나아

109) 池圭鎔. 格致藁譯解. 서울. 永林社. 2001. p.373.

110) 池圭鎔. 格致藁譯解. 서울. 永林社. 2001. p.372.

111) 池圭鎔. 格致藁譯解. 서울. 永林社. 2001. p.374.

112) 孟子集註. 서울. 明文堂. 1983. p.176. : 孟子曰伯夷隘, 柳下惠不恭. 隘與不恭, 君子不由也.

113) 池圭鎔. 格致藁譯解. 서울. 永林社. 2001. p.374. : 身有兩用, 誠身敬身也. 心有兩用, 理心利心也. 誠身敬身者, 身之前後也, 誠於乾而敬於坤也. 理心利心者, 心之左右也, 理於離而利於坎也. 擇理未精則理亦利也, 擇利得正則利亦理也.

114) 池圭鎔. 格致藁譯解. 서울. 永林社. 2001. p.204.

115) 池圭鎔. 格致藁譯解. 서울. 永林社. 2001. p.374. : 易曰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之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116) 池圭鎔. 格致藁譯解. 서울. 永林社. 2001. p.375.

가 64卦로 분화되어 나가도 모두 본연의 太極 즉, 心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格致彙』에 나타난 이러한 八卦 중심의 인체관 및 우주관은 이후 『東醫壽世保元』의 사상의학을 형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원리가 되었다.

Ⅲ. 考察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대표적인 醫書인 『醫方類聚』, 『東醫寶鑑』, 『素問大要』 등과 기타 『格致彙』에 담긴 64괘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서로 간에 일관적으로 이어지는 어떠한 흐름의 특징을 바로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특징들을 통하여 시대별 당시 醫易學의 면모를 짐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醫方類聚』에서는 文王後天八卦圖의 방위 배속을 기준으로 五行 또는 五臟에 八卦를 대응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주요 서적 가운데 비중이 줄어들었다. 또한 乾卦와 坤卦를 중심으로 우주의 변화를 일부 설명하고는 있으나 鼎器를 중심으로 하는 道家의 內丹術에 초점이 모아져 있으며, 『參同契』를 인용한 점도 이러한 특징을 뒷받침하고 있다. 坎離의 陰陽 변화 속에서 屯卦와 蒙卦, 既濟卦와 未濟卦 등을 설명한 것도 內丹術에서 중시하는 인체와 우주의 氣 순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상대적으로 의학적 내용과 64卦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한 부분은 드물었으며, 蠱病에 대하여 蠱卦의 艮卦(山, 少男)와 巽卦(風, 長女)를 통하여 설명한 것 정도였다.

『東醫寶鑑』에 기재되어 있는 64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參同契』 등의 內丹術 안에서 乾卦와 坤卦를 설명하기보다는 우주론의 氣 철학을 바탕으로 乾一과 坤二의 두 氣가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乾坤의 생명현상은 一闕一關으로 표현되고 나아가 인체에 투영되면 男女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坎卦와 離卦도 단지 각각 水火의 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 五臟 중 心腎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해부학에서 心系와 腎系가 연결되는 것까지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氣의 상호 운동 변화는 인체 내에서 하나의 순환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泰卦, 否卦, 剝卦, 復卦, 既濟卦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否卦의 경우는 임상에서 나타나는 병증의 하나인 痞證의 병리와도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氣의 순환 개념은 임상 치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처방 중에서도 坎離, 既濟, 交泰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다수 활용되었다.

『素問大要』에 나오는 64卦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素問大要』가 『素問』에 대한 해설서이므로 구체적인 의학 관련 64卦 내용은 많지 않았다. 이전의 醫書들에 비하여 乾坤坎離 등의 핵심적인 卦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으며, 五方に 배속된 八卦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인체 상하의 관계에서 水火나 陰陽의 交濟에 대한 기술과 天地交泰에 관한 설명이 보이는데, 이는 李圭峻이 『黃帝內經』 연구를 통하여 특히 陽氣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文王後天八卦圖의 八卦 방위 배속에서 벗어나 南方火에 乾卦를, 東方木에 巽卦를 대응시킨 것도 扶陽學說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조선 후기의 자유로운 사상적 풍토를 반영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의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는 『格致彙』에서는 인체의 상하좌우에 乾坤坎離의 四卦를 배치하여 일견 伏羲先天八卦圖의 방위 배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事心身物로 구성되는 四象醫學의 인체관, 세계관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이다. 즉, 사방에 배치된 八卦들은 마음과 몸, 자신과 남 사이의 관계들로 이어지고, 이러한 관계성들은 결국 事心身物의 四象으로 수렴된다¹¹⁷⁾. 또한 인간이 四象과 八卦, 나아가 64卦로 분화되어 나가더라도 모두가 본연의 太極 즉, 心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格致彙』에 나타난 이러한 八卦 중심의 인체관과 우주관은 이후 『東醫壽世保元』의 사상의학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의학 분야에 적용된 易學은 다양한 十翼의 내용들을 아우르기보다 주로 각각의 卦德 또는 卦象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醫書를

117) 김두영. 李濟馬의 醫哲學의 四象論 研究. 江原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9. pp.16-17.

살펴본 결과, 64卦 가운데 乾卦, 坤卦, 屯卦, 蒙卦, 泰卦, 否卦, 蠱卦, 剝卦, 復卦, 坎卦, 離卦, 震卦, 艮卦, 巽卦, 兌卦, 既濟卦, 未濟卦 등 총 17개卦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으며, 주로 인체의 상하 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氣의 交濟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醫學 분야가 易學을 차용한 것일 뿐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지는 않았던 때문이며 실용학문인 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경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 『醫方類聚』에서 중기 『東醫寶鑑』로 이어지면서 조선에서는 小周天 등 道家의 內丹術을 넘어서 보다 의학적 특색이 강해지는데 즉, 精氣神의 관점으로 인체와 우주의 변화를 바라보았고, 이러한 전통 하에서 乾坤의 闔關, 水火의 交濟 등의 氣 순환에 더욱 주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李奎峻의 『素問大要』에서도 인체 내 陽氣 위주로 氣의 순환으로 바라보면서 易學을 적용하였고, 李濟馬 四象醫學의 경우도 八卦를 事心身物의 몸과 마음, 인간과 우주 간의 관계 구조 속에 배치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나, 上下左右, 前後의 구조가 기능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은 여전히 인체 내부의 精氣神과 氣의 순환을 중시하는 조선시대 의학 전통의 맥락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각 시대별 醫書에 나타나는 易學의 내용에 대하여 易學史의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웠으며, 이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V. 結論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주요 醫書인 『醫方類聚』, 『東醫寶鑑』, 『素問大要』 및 李濟馬의 철학서인 『格致叢』 등에 실린 64卦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그 특징들과 역사적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醫方類聚』에서는 文王後天八卦圖의 방위 배속을 기준으로 五臟에 八卦를 대응하여 설명하였으며, 『周易參同契』를 비롯한 內丹術을 배경으로 인체

와 우주의 氣 순환을 乾卦와 坤卦, 坎卦와 離卦, 屯卦와 蒙卦, 既濟卦와 未濟卦 등의 상호 관계로 설명하였다. 이에 비하여 일부 蠱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학적 내용과 64卦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한 부분은 드물었다.

2. 『東醫寶鑑』에서는 우주론적인 氣 철학을 바탕으로 一闔一關으로 작용하는 乾坤의 변화와 坎離의 상호 작용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원리는 인체의 생명현상에 투영되어 男女의 형상으로 표현되거나 心腎의 상호 작용과 해부학적 구조까지도 연결되었다. 氣의 인체 내 순환은 泰卦, 否卦, 剝卦, 復卦, 既濟卦 등의 관련 내용들로 설명되었으며, 임상 치료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坎離, 既濟, 交泰 등의 명칭을 사용한 처방들이 다수 활용되었다.

3. 『素問大要』에서는 직접적으로 의학과 관련된 64卦의 내용은 많지 않았고, 五方에 배속된 八卦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이 있을 뿐이다. 단, 陽氣의 역할을 중시한 李奎峻의 扶陽學說과 관련하여 水火나 陰陽의 交濟, 天地交泰에 관한 설명들이 포함되었으며, 文王後天八卦圖의 八卦 방위 배속도 일부 기준의 것과 차이나는 것이 보였다.

4. 『格致叢』에서 인체의 상하좌우에 乾坤坎離의 四卦를 배치한 것은 伏羲先天八卦圖의 방위와 유사하나, 이는 事心身物로 구성되는 四象醫學의 인체관, 세계관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로서, 이때 八卦들은 마음과 몸, 자신과 남 사이의 관계들로 이어지게 된다. 上下左右, 前後의 구조가 기능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은 인체 내부의 精氣神과 氣의 순환을 중시하는 전통의 맥락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四象과 八卦, 64卦로 이어지는 분화 과정에서 본연의 太極 즉, 心을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인체관과 우주관은 이후 『東醫壽世保元』의 사상의학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5.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의학 분야에 적용된 易學은 다양한 十翼의 내용들을 아우르기보다 주로 각각의 卦象에 집중되어 있고, 64卦 가운데에서는 인체의 상하 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氣의 交濟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道家의 內丹術을 넘어서 精氣神의 관점으로 인체와 우주의 변화를 바라본 결과

이며, 이러한 전통 하에서 乾坤의 闔闢, 水火의 交濟 등의 氣 순환에 더욱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각 시대별 醫書에 나타나는 易學의 내용에 대하여 易學史의 분야를 배경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1. 具德謨, 姜孝信. 格致彙에 나타난 李濟馬의 醫哲學 背景 研究. 濟韓東醫學術院論文集. 1997. 2(1).
2. 金東主. 黃帝內經과 周易의 中心思想比較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3. 金明賢. 臟腑와 三陰三陽의 八卦 配屬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6.
4. 金憲. 東醫寶鑑 처방의 易學原理 활용에 대한 연구. 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8.
5. 金憲. 否卦의 활용을 중심으로 본 醫林撮要 속의 易學思想. 韓國醫史學會誌. 2008. 21(1).
6. 김대진. 張介賓 의학의 철학적 고찰. 東義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7.
7. 김두영. 李濟馬의 醫哲學의 四象論 研究. 江原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9.
8. 金赫濟 校閱. 原本備旨孟子集註. 서울. 明文堂. 1983.
9. 박중태. 주역참동계의 내단학과 양생의 원리. 公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20. pp.114-115.
10. 潘啟明. 周易參同契通析. 上海. 上海翻譯出版公司. 1990.
11. 白裕相. 易學의 醫學의 適用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3).
<https://doi.org/10.14369/skmc.2014.27.3.087>
12. 盛增秀, 陳勇毅, 王英 重校. 醫方類聚(9).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3. 吳世昶. 易이 韓醫學의 形成에 끼친 影響. 慶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14. 東醫科學院 校閱監修. 醫方類聚(1). 서울. 驪江出版社. 1994.
15. 李奎峻. 素問大要. 고양. 대성의학사. 1999.
16. 임명진. 周易參同契 연구. 大田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0.
17. 林炳學. 格致彙에 나타난 東武의 易學의 사유체계. 大東文化研究. 2013. 84.
18. 전국한의학사상학회.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11.
19. 丁彰炫. 內經의 月令(四時)-신체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의 해석.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9. 12(2).
20. 李濟馬 原著. 池圭鎔 譯解. (東武)格致彙譯解. 서울. 永林社. 2001.
21.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1.
22.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5%90%a6%e5%8d%a6
23.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6%b3%b0%e5%8d%a6
24.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a%b8%b0%ec%a0%9c%ea%b4%98
25.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b%91%94%ea%b4%98
26.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b%aa%bd%ea%b4%98

27.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b%af%b8%ec%a0%9c%ea%b4%98

28.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b%b0%95%ea%b4%98

29. 韓國周易大全. 2017. [cited on January 15, 2022] ; Available from : URL :

http://waks.aks.ac.kr/rsh/dir/rsearchItem.aspx?rptID=AKS-2012-EAZ-2101_T&rshID=AKS-2012-EAZ-2101&sType=&sWord=%eb%b3%b5%ea%b4%98